

KIA ‘고졸 루키’ 박재현 “올 시즌은 다사다난”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58경기서 5개 안타·4도루 그쳐…실책도 빈번
“1군에 맞는 모습 미흡…제대로 갖추고 뛸 것”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재현의 2025시즌은 ‘다사다난’이었다.

박재현은 인천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루키다.

빠른 발과 재치 있는 타격으로 마무리캠프에서부터 눈길을 끌었던 박재현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화려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기대감 속에 시작한 시즌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58경기에 나와 69타석을 소화한 그는 5개의 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4개의 도루를 기록했지만 3차례 도루 실패도 남겼다. 3개의 실책도 남겼다.

“올 시즌을 다사다난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박재현은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렀다. 1군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값진 경험이다. 1년 차 신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좋은 경험이고 기회였지만 신인이라고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올라왔으면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얻은 것도 많이 없이 혹 지나간 느낌이다”며 올 시즌을 돌아봤다.

자신만만했던 시작과 달리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다.

박재현은 “옛그제 신인이라고 인사하러 온 것 같은데 시즌 끝난 뒤 자고 일어났는데 첫날에 너무 허무했다. 스스로 멘털이 안 잡힌 상태에서 첫 시즌을 보낸 것 같아 그게 제일 아쉽다”며 “야구장에 왔으면 나만의 확실한 생각을 하고 와야 했는데, 혼자 생각에 휘둘렸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다 보니까 해볼 것 없이 끝났다. 그게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박재현은 14일부터 울산에서 개막하는 KBO 가을 리그를 통해 올 시즌 아쉬웠던 부분을 바탕으로 전력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연습과 도전이 키워드다.

박재현은 “프로 와서 우익수를 처음 해봤다. 센터에서 생각하는 타구 길이랑 라이트에서 오는 타구 길 느낌이 다르다. 여차피 뜬 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놓치면서 알았다. 계속 실수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잡던 것들을 놓치고 그랬다”며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수비는 그냥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타격에서는 수싸움을 하면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다. 타자는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잘 치는 것인데 나는 아직 프로 레벨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공격은 삼진을 줄이는 게 첫 번째다. 타구를 앞으로 쳐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주루도 그냥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운 만큼 생각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생각이다.

박재현은 “조재영 코치님이 주루 훈련 할 때 최대한 투수 습관 같은 것을 보라고 하신다. 훈련 할 때도 타구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박)찬호 선배가 (김)도영이 형처럼 엄청 빠른 것은 아닌데 도루를 잘 하는 것을 보면서 달리기로만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허무하게 끝난 시즌이라고 하지만 박재현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얻었다.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운 박재현은 올 시즌 교훈을 잊지 않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생각이다.

박재현은 “(나)성범 선배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어떻게까지 야구를 했는지 경험을 알려주셔서 그런 것도 참고 하면서 비시즌 보내야 할 것 같다”며 “내년에 시작할 때 1군에서 시작하는 2군에서 시작하는 멘털 안 흔들리고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와 싸워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선수단 필승 다짐

5회 연속 3만점 이상 획득 목표…17일 부산서 개막

광주시체육회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앞두고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출사표를 냈다.

광주 선수단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육상 등 50개 종목, 총 1439명이 참가한다.

목표는 5회 연속 3만 점 이상 획득이다. 광주시청 육상팀의 활약이 기대된다. 광주시청은 남자일반부 400m 계주 5연패에 도

전하고, 지난해 전국체전 ‘4관왕’ 고승환과 독일 라인루트 ‘하계U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재성이 금빛 질주를 예고했다.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운태, 역도의 손현호도 국가대표다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자농구 강호 수피야여고가 메달권 진입에 나선 등 농구, 핸드볼, 스쿼시 등 단체종목에서도 메달 경쟁이 예상된다.

유도, 레슬링, 태권도 등 개인 체급종목과 궁도, 조정, 에어로빅합합 등 기록종목에서도 상위 입상을 노린다.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에 도전하는 시체육회는 이번 체전에서 광주 선수단 지원은 물론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국가 AI컴퓨터센터 광주 유치’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13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합 화식과 출발식이 열렸다.

성화는 나흘간 주자 1200여 명과 함께 부산 16개 구·군을 달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페로제도 선수들이 12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예선 L조 7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

〈페로제도 축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136위 페로제도, 월드컵 예선서 체코 잡다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2-1 승
사상 첫 본선 진출 가능성 높아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6위의 페로제도가 39위 체코를 물리치는 이변을 일으키며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페로제도는 12일 페로제도 토르스하운의 토르스블루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

럽예선 L조 7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격파했다.

3연승을 달린 조 3위(승점 12) 페로제도는 2위 체코를 승점 1차로 추격했다.

마지막 8차전 결과에 따라 페로제도가 체코를 제치고 ‘역전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생겼다.

페로제도는 마지막 8차전에서 조 1위 크로아티아를, 체코는 조 5위의 최약체 지브롤터를 상대한다.

인구 5만5000명의 소국이며 국토 면적이 1400㎢로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군 정도에 불과한 페로

제도는 유럽 축구의 변방이다. 국가대표팀 경기를 치르는 토르스블루르 경기장은 65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아담한 구장이다.

전통적으로 피지컬을 앞세운 단단한 수비에 집중하며 비교적 단순한 축구를 구사해온 페로제도는 올 초 지휘봉을 잡은 클라크스테인 감독의 지도 아래 역습 전개와 세트피스 전술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으면서 경기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됐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고졸 루키’ 박재현이 아쉬웠던 2025 시즌을 거울 삼아 14일 개막하는 KBO 가을 리그에서 새 시즌을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승택 “PGA 입성 꿈만 같다”

콘페리투어 24위…내년 시즌 투어 출전권 획득

‘불곰’ 이승택이 2026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승택은 13일 미국 인디애나주 프랜치릭 리조트 피트 다이 코스(파72·7791야드)에서 열린 PGA 2부 콘페리투어 파이널스 최종전인 콘페리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2개를 합해 6언더파 66타를 쳤다.

그는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이승택은 콘페리투어 포인트 197.018점을 확보, 이 부문 13위에 오르면서 상위 20명에게 주어지는 차기 시즌 PGA 투어 카드를 받았다.

이승택은 “꿈이었던 PGA 투어에 입성하게 돼 정말 기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까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한 이승택은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5위로 2~5위에게 주어지는 PGA 투어 Q스쿨 2차전 응시 자격을 얻었다.

이어 Q스쿨 2차전에서 공동 14위에 올라 상위 15명에게 주어지는 PGA 투어 Q스쿨 최종전에 진출했다.

이후 PGA 투어 Q스쿨 최종전에선 공동 14위를 마크, 상위 40명에게 주는 2025시즌 콘페리투어 출전권을 얻었다.

그는 올 시즌 콘페리투어에서 준우승 한 차례를 비롯해 톱10 6차례를 기록했고, 21개 대회에서 컷 통과했다.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특전 제도를 통해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한 뒤 PGA 투어에 진출한 건 이승택이 첫 사례다.

이승택은 2015년 KPGA 투어에 데뷔한 뒤 2018년부터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를 병행



2026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한 이승택.
〈KPGA 제공〉

했고 2020년 입대해 육군 보병 사단 소총수로 복무한 뒤 2022년 6월 전역했다.

2023년 KPGA 투어에 복귀한 이승택은 2024년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고 이후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한편 올 시즌 콘페리투어에서는 두 명의 한국 선수가 PGA투어 카드를 따냈다.

김성현은 콘페리투어 포인트 랭킹 8위에 올라 2년 만의 PGA 투어 복귀에 성공했다.

그는 2023년 PGA 투어에 진출했으나 지난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30위에 그쳐 출전권을 잃고 콘페리투어로 내려왔다.
/연합뉴스